

한국특허정보원 민경탁 원장,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취임



한국특허정보원 민경탁 원장 취임식 장면

한국특허정보원 민경탁 원장이 지난 9월 9일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9월 9일 오전 10시 민경탁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임식에서 민경탁 원장은 “한국특허정보원 임직원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준 열정과 노력을 잊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정보 보급 및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경탁 원장은 지난 2000년 5월 특허기술정보센터 소장으로 부임 이래, 2001년 독립법인 한국특허정보원 설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으며,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의 확대는 물론, 데이터관리센터, 특허고객콜센터, 상표조사분석사업 등 골직한 사업 확대로 한국특허정보원의 조직 및 규모 등을

크게 확대시킨 바 있다.

특히, 국내외 홍보 강화를 통해 정보원의 위상을 격상시켜 해외 특허청 및 관련기관에 정보원의 인지도를 높이 향상시킨 주역이다.

1966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상공부를 거쳐 특허청 상표1과장, 총무과장, 정보자료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 약 25년을 공직생활에 몸담은 민경탁 원장은 온화한 성품과 넓은 포용력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과 꼼꼼함을 두루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황조근정훈장(00'), 대통령 표창(74'), 상공부장관 표창(72'), 근정포장(80') 등을 수여했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은 민경탁 원장의 이임에 따라 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원장 영입절차에 들어갔다.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추천위원회 개최



민경탁 원장의 이임으로 공석이 된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추천을 위한 원장추천위원회가 지난 9월 17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각각 개최됐다.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정부 산하기관 인사운영쇄신 지침」 및 특허청 「산하단체 인사운영 합리화 지침」에 따라 개방형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됐다.

이에 따라 원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 지방인사 30% 이상, 여성 20% 이상의 기준에 맞춰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산업재산권 및 정보화 분야의 후덕한 경험 및 폭넓은 지식을 갖춘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이번 원장 공모는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고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은 물론, 특허청,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됐다.

중국 특허청 관계자 한국특허정보원 방문



↑ 湖北省 지식산업국 관계자



↑ 중국 지식산업국 심사관 일행

최근 들어 해외 특허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방문이 잇달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 우리 기관 방문이 두드러지게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중국 湖北省 지식산업국 국제사무처 및 특허관리처 관계자 5명이, 9월 25일에 지식산업국 심사관 일행 6명이 각각 방문, 우리 정보원의 역할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湖北省 지식산업국 국제사무처 양달리 처장은 “한국의 놀라운 출원건수에 대해서도 놀랐지만 한국특허정보원이 선행기술조사분석을 통해 특허청 특허 심사기간 단축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식산업국 심사관 두 준 과장은 “중국의 특허심사는 아직 출원건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지식산업국 심사관이 모두 담당하는데 한국과 같이 연간 출원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중국에도 한국특허정보원과 같은 기관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국의 선진 특허행정시스템에서 중국 특허행정의 나아갈 길을 찾았다고 극찬했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은 급증하는 해외 특허청 및 유관기관의 방문을 계기로 교류확대 방안 및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해외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